

새해 한국 경제에 바란다

병오(丙午)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평소 「i-KIET 산업경제이슈」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는 회복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향방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지정학적 갈등과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는 글로벌 공급망과 교역 질서의 변동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 여건은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공급망의 지역화 및 우방 중심화 흐름은 기회요인으로 활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2026년에 1.9%의 성장이 예상되며, 금리·물가의 안정과 함께 민간 소비의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 등 첨단 부문의 투자가 설비투자의 질적 전환을 이끌고, 고용 및 서비스 소비 개선도 경기 정상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교역 둔화, 대(對)미국 통상 리스크, 건설·부동산 조정은 회복 흐름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6년에는 한국 경제가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분기점으로 변화의 압력을 기회로 전환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경제가 전환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첫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급망·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디지털·AI 기반 생산성의 혁신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셋째, 탄소중립·청정에너지로 대표되는 기후·에너지 전환을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넷째, 인구 감소 대응과 노동·재정의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산업과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기를, 그리고 우리 경제가 미래 세대에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남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1월 1일
산업연구원장 권남훈

세계 경제, 불확실성의 심화 속에서 기회를 포착해야 할 때

2026년의 문을 연 지금,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의 마지막 단계를 지나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변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물가와 금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팬데믹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높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공급망 재편은 글로벌 교역의 확장세를 제약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세 강화 전략, 유럽의 그린·디지털 전환 가속, 중국의 자급률 제고 정책 등은 세계 산업의 지형을 뒤바꾸고 있다.

세계 교역 질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조금 확대, 주요국의 자국 산업 보호 규범 등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공급망 동맹의 확대와 보호무역주의 제도화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 투자 전략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유지 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 변화가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외적으로 공급망의 지역화 및 우방 중심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한국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가치사슬 내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것도 사실이다. 기술표준과 글로벌 규범의 형성 과정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내 경제, 내수 회복과 함께 구조적 전환을 준비해야 할 시기

2026년 국내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임에도 비교적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의 대내외 복합 요인들로 인해 고환율화에 대한 불확실성과 우려가 상존하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되고 있고 금리가 점진적 하향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2026년의 우리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약 1.9%로 전망되며, 특히 민간 소비가 회복세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 환경에서 억눌려 있던 소비가 소득 개선과 고용 여건 회복에 힘입어 정상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서비스 소비와 대면(오프라인) 활동의 증가는 국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의 투자 역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 성장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반도체·전기차·바이오 등이 설비투자의 중심축으로 자리하면서 한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다만, 글로벌 교역 둔화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는 수출과 투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며, 산업별로 차별화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그동안 내수 부진의 원인이 되어 온 건설 경기는 공공 SOC와 인프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이나, 민간 주택 부문의 조정과 자금시장 불안정성은 여전히 구조적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국내 경제 환경은 한국 경제가 회복과 동시에 구조적 제약을 안고 있는 전환기 국면에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제는 단순한 경기 여건의 개선이 아니라 경제 체질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하고 있다.

산업 여건, 기술혁신과 수요 변화가 여는 새로운 성장 지형

2026년 한국 산업은 글로벌 변화 속에서도 분야별 고유의 성장동력과 구조적 혁신을 기반으로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생성형 AI와 고성능 컴퓨팅의 확산으로 다시금 세계 산업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모두 수요 기반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 공정기술의 확보와 패키징 혁신, 글로벌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 등이 장기 경쟁우위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전기차·자동차 산업은 전동화 전환기의 조정 국면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확대로 전략적 선택의 범위가 커졌고,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SDV), 자율주행 기술, 배터리 효율성 경쟁 등은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공급망 규범 변화가 장기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어 체계적 대응이 요구된다.

조선 산업은 친환경 고부가 선종 중심으로 구조적 호황기가 이어지고 있다. LNG·암모니아·메탄올 추진선 등 ‘탈탄소 선박’ 수요 확대는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자재·중소 조선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혁신이 산업 생태계 강화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이차전지 산업은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규범 변화로 단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차세대 전지 기술 확보, 광물 공급망 안정화, 재활용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드라마·영화·케이팝(K-POP)·웹툰·게임 등 다양한 장르에서 글로벌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재·관광·플랫폼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창출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 경제의 서비스화 및 구조 다변화에도 주요하게 기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산업별 흐름은 한국 경제가 변화의 압력 속에서도 혁신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 방향, 전환기 한국 경제의 ‘실행력’이 모든 것을 결정

2026년은 단순한 경기 회복을 넘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와 국내 경제주체들은 다음과 같이 노력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의 대응과 경제 안보 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발(發)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국제 규범 재편 속에서 핵심기술·소재·부품 확보, 공급망 안정성 제고, 해외 생산기지 다변화 등이 절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규범 변화에 대한 즉각적 정보 제공과 기업 지원체계 구축도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AI 기반 생산성 혁신의 가속화가 요구된다. AI·디지털 기술은 모든 산업 경쟁력의 토대이므로, 국가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AI 활용 확대,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기후·에너지 전환을 미래의 성장 엔진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저장 시스템 확충, 친환경 공정 전환, 기후산업 투자 확대 등은 산업의 생존조건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므로, 한국이 기후산업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인구·노동·교육·재정 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의 회복이 요구된다. 인구 감소는 그 자체만으로 장기 성장 경로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 참여 확대, 첨단인력 양성, 직업훈련 혁신, 지역 인구 위기 대응 등과 관련된 대책이 필요하며, 재정·규제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출발점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2026년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산업 간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어 기존의 방식과 규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수차례의 위기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온 저력과 기술혁신 역량, 그리고 높은 역동성을 바탕으로 충분히 새로운 성장을 실현해 나갈 힘을 지니고 있다.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등 국내 모든 경제주체들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2026년을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질서를 구축하는 원년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한 해, 우리 경제의 굳건한 발전과 도약을 기원하며 앞에 놓인 도전과 기회를 함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